『영미연구』
제46집 (2019): 125-148

# 문화적 맥락에서 본 헨리 하워드, 써리 백작의 「런던 시민들에 대한 풍자」 연구*

이 진 아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전반 런던의 문화적 상황들의 맥락에서 「런던 시민들에 대한 풍자」를 연구한다. 써리의 거리 소동과 투옥의 과정 속에 쓰인 이 시는 당시 양모 산업과 수도원 해산으로 인해 활성화된 부동산 시장 등으로 급격히 커지고 발전해나가던 런던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간으로 질타한다. 당시 런던의 급성장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한 영적, 도덕적 비판에 더하여, 시인은 어떤 면에서 당시 튜더 왕조와 결탁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던 런던 상인 엘리트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시민 계층과 써리의 전통 귀족층의 갈등과 경쟁의식, 그리고 도시로서 국가통치의 모델이 될 런던과 부르주아 계층으로 시민사회를 주도해나갈 시민계층에 대한 예견도, 시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인의 비판 속에 함축하고 있다.

**주제어: 헨리 하워드, 써리 백작, 「런던 시민들에 대한 풍자」, 풍자시, 근대 초기 런던, 바빌론**

---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헨리 하워드, 써리 백작(Henry Howard, Earl of Surrey 1517-1547, 이후 써리라 약칭)은 사랑과 우정, 정치적 도덕성, 죽음 등 여러 주제를 다루는 소네트와 노래들, 시편과 전도서 번역,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아이네이드』(*Aeneid*) 일부 번역 등을 남겼는데, 그의 시적 재능은 당시 실제 인물과 구체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작품들에서 특히 그 빛을 발한다. 그런 작품들에서 써리는 헨리 8세의 절대 왕정에서 최고 덕목이었던 은밀함과 신중함, 용의주도함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하여 그의 서슴없고 "앞뒤 가리지 않는 어리석음 혹은 용맹함"(Brigden, "Henry" 507)이 창의적인 수사력과 영감에 찬 시작(詩作) 기술과 결합하여 그만의 독특한 문학성을 담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런던 시민들에 대한 풍자」 ("A Satire Against the Citizens of London," 이후 「런던」으로 약칭)도 써리에게 개인적인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 계기가 된 작품이다.[1] 이 작품은 친한 일행들과 한밤중에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본인도 인정하듯이 "경솔한 가슴"(a reckless breast, 「런던」 19)[2]으로 소란을 피우다 갇힌 감옥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써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런던을 향해 비난과 심판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예언자의 페르소나를 취한다. 「런던」은 일견 분명한 예언적 목적을 가진 듯한데, 준엄한 예언자의 어조는 또한 익살스러운 유머와 아이러니도 담고 있어, 힐(Elizabeth Heale)이 지적하듯이 "그 어조와 목적을 가늠하기가 어렵기로 악명 높은 장황한 비난"(140)의 풍자시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는 단순히 "익살스러운 풍자시"(Padelford 22) 혹은 진지한 신앙적 예언시(대표적으로 Mason 243; Brigden, "Howard" 518-19)로 간주되기도 하고, 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독선적인" 풍자 언어로 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모방 영웅시(Sessions 234)로 평가되기도 한다. 테일러(Andrew W. Taylor)와 같은 학자는 이 시가 가진 이와 같은 해석상의 불확정성의 원인을 이 시의 불분명한 종교적 성향보다는 수사학적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써리의] 심원한 미해결성"(433)은 페트라르카(Petrarch)의 도덕적, 문학적 권위에 대해 당시 궁정이 가졌던 양가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써리의 「런던」에 대한 연구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점은 그의

독설적 풍자가 당시 런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의 질타의 대상이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런던이라는 공간의 어떠한 구체적 상황들이 이 시의 저작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시는 써리가 역모 죄로 몰려 투옥된 후 재판에서 증거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이 시에서 써리가 쏟아놓는 예언적 비난과 심판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시의 종교적 수사학이 함축하고 있는 당시 런던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이 시에 나타나는 해석적 불확실성을 보다 구체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시 근대적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던 런던의 시대적 상황들, 특히 종교적, 경제적 맥락에서 「런던」을 탐구한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이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종교적 풍자와 예언이 당시 영국과 런던의 문화적 변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양상들을 파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런던」은 써리가 1543년 플리트(Fleet) 감옥에 갇힌 사건에서[3] 시작된 시이지만, 그 의미는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 당시 문화적 맥락의 중요한 일들과 관련이 있다. 1543년 부활절 즈음 젊은 써리(당시 25세)와 그의 친구들은 사순 기간 중에 금식과 금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종교적 규율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한 밤중에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주택과 교회의 창문들을 깨고 도제들을 위협하고 서더크(Southwark)에 있는 사창가에도 돌팔매질을 하였다. 이로 인해 런던 시장과 시의원들, 추밀원 의원들이 함께 이 문제를 심각히 논의하였고 써리는 한 달 정도 플리트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때 그는 자신을 고소한 런던을 풍자하는 「런던」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1543년경 영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었으므로(Heale 43; Taylor 436), 사순절 단식과 금육과 같은 종교적 규율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써리와 같은 상류귀족이 취조와 투옥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례적이었으므로 그의 고소와 투옥은 그 자신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써리는 이 시에서 성경의 예언자들처럼 도덕적, 영적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데, 성경을 사용하는 그의 프로테스탄트적, 복음주의적 규탄은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을 향하는 듯이 보인다. 시인은 작품 서두에서 "런던이여"(London, 「런던」 1) 하고 정확히 런던을 지목하여 런던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 참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런던 안에서 너무나 죄들이 창궐하고 있어서 시인 자신이 벌에 대한 두려움도 마다하고 그 죄들에 대한 증오를 폭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런던」 5-8).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설교가"(preachers, 「런던」 9)들도 교화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거리 행위는 "성경이 보여주는 죄에 대한 재앙"(scourge for sin the Scriptures show, 「런던」 22)의 재현이었다. 런던은 영국 종교 개혁의 출발지였고 "최초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복음화된"(Brigden, *Reformation* 2) 곳이다. 16세기 이전에 이미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의 영향을 받은 롤러드들(Lollards)이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런던에 영향을 주었고, 종교개혁 즈음에는 윌리엄 틴덜(William Tyndale)과 복음주의자들(gospelers)도 런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 도시를 신앙개혁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렇게 종교 개혁의 중심인 런던을 써리가 복음주의자를 거론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관점에서,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에도 의지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의 도덕적, 영적 차원의 비난 속에 함축된 구체적 현실, 특히 런던의 어떤 점들에 대해 규탄을 하는지, 그의 비난의 화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향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런던이 죄의 온상이라고 꾸짖은 후 써리는 런던의 죄악들의 근원을 칠죄종(seven deadly sins)에서 기원한다고 명시하며 종교적으로 런던을 단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칠죄종은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통교회의 오랜 교리이므로 그가 보수적 종교 전통을 무시하는 개혁적 관점만을 견지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또한 써리가 런던에 넘치는 죄악으로 열거하는 칠죄종은 그가 공격하는 구체적 대상이나 상황들을 추정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칠죄종은 교만(pride, 「런던」 28), 질투(envy, 「런던」 30), 분노(wrath, 「런던」 32), 나태(sloth, 「런던」 34), 탐욕(greed, 「런던」 36), 음욕(lust, 「런던」 38), 폭식(gluttony,

「런던」 40)이라고 할 수 있다. 써리도 이 일곱 가지 죄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 다른 죄들과 달리 탐욕만은 "돈에 대한 탐욕"(greedy lucre, 「런던」 36)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경제적 탐욕은 "부당하게 얻은 재화"(ill-got goods, 「런던」 37)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써리가 풍자하는 구체적 대상은 런던이나 런던 시민들이 취한 불의한 경제적 이익이나 재화이고 그 이익 추구의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리그덴(Susan Brigden)은 써리의 시들에서 탐욕적인 부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Conjured" 518), 써리가 「런던」에서 경제적 이익에 눈먼 이들을 몹시 경멸하며 비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의 풍자적 공격의 대상이 런던 상인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써리가 사용하는 런던에 대한 호칭들을 살펴볼 때 그가 공격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이 호칭들은 당시 런던과 시민들에 대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써리의 인식의 중요한 지표들이라 생각된다. 시인은 칠죄종에 비추어 런던의 죄악을 열거한 후, "거짓과 불의의 옷을 입은"(Clothed with falsehood and unright,「런던」 46) 런던을 향하여, "후안무치한 창녀"(shameless whore, 「런던」 51), "거짓된 바빌론의 일원"(member of false Babylon, 「런던」 53), "간계 제조소, 울분의 소굴"(The shop of craft, the den of ire, 54), "바빌론"(Babylon, 「런던」 67) 이라 소리친다. 이 호칭들에서 런던의 전반적 이미지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빌론의 이미지이다. 전통적으로 공간을 양극화할 때 도시와 가장 흔한 대조 공간은 시골(country)이다. 그 외에도 도시의 성격들을 양극화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인간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 지상의 도시와 천상의 도시, 로마와 예루살렘, 바빌론의 창녀와 어린양의 신부"(Paster 2) 등이다. 창녀나 신부라는 비유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성성과 연상되어 도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데 따라서 도시가 공격과 정복의 대상 공간이라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4). 써리가 공격하는 런던도 "[네] 사악한 성벽"([thy] wicked walls, 「런던」 6), "[네] 성벽의 울타리"(the closures of [thy] wall, 「런던」 47)로 둘러싸여 있는 여성적 공간이다. 하지만 정복하여 소유하고 싶

어 공격하는 여성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성적으로 타락하여 그 죄의 치부를 들추어내기 위해 공격하고 싶은 공간이다. 런던이 성적으로 타락한 창녀라면 그 안에서 "자라는 죄들"(sins that grow, 「런던」 5)인 칠죄종 중 대표적인 죄악은 음욕, 그리고 음욕을 탐하는 "호색가들"(lechers, 「런던」 61)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심판을 받아 런던의 호색한들이 시달리는 "질병"(pest, 「런던」 60)은 성병일 것이다. 써리가 1543년 한 밤중에 동료들과 서더크 사창가에 가서 창녀들에게 돌팔매질을 했고, 이 시를 쓴 3년 후, 그가 마지막으로 투옥된 1546년에는 당시 런던 서더크의 사창가가 폐쇄되었고, 헨리 8세가 성병환자였던 점(Porter 56) 등은 써리의 한밤중 난동과 그의 풍자시가 런던의 구체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말해준다.

써리가 성벽을 기준으로 성 안의 구역을 런던으로 규정하여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당시 런던의 현실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1500년 경 인구 35,000 여명으로 중세 후기 공동체의 면모를 가졌던 런던은 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대도시로 확장 발전하여 1670년경에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유럽 5위권 안에 든 도시가 된다(Roy 34; Manley 1). 써리가 살았던 16세기 전반부는 런던이 그와 같이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놓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런던이 특히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영국 전역에서 런던에 연고 없이 몰려든 이주자들과 부랑자들, 노동자들, 자격을 못 갖춘 도제들과 이민자들, 빈자들은 런던 성 밖, 런던 교외에 거주하였다(Manley 6, 16). 그런데 1540년대 초 런던의 인구증가가 빠르게 진행 중이기는 했지만 런던 거주 인구가 성벽을 넘쳐흐를 정도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인구가 늘고 있기는 해도 아직은 성안에 과밀한 형태로 집중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써리는 런던 성안을 런던으로 규정하였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만일 런던 인구가 성 밖으로 넘쳐났다 할지라도 써리의 풍자는 전통적으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즉 런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벽 밖의 가난하고 시민 자격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계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런던 시를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실제로 운영한 계층은 소위 런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었으므로, 써리가 비난하는 죄목들의 책임은 런던 성 안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써리의 풍자적 예언은 런던 성 밖으로 인구가 넘쳐났다 할지라도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특권을 가진 시민들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대해서는 써리가 런던을 구체적으로 "바빌론의 일원"으로 "간계 제조소, 울분의 소굴"이라 부른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시인은 처음에는 런던을 타락한 여성으로 의인화할 뿐 직접적으로 바빌론이라 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곧 이어 런던을 "거짓으로 가득 찬 바빌론의 일원"(member of false Babylon, 「런던」 53), 즉 바빌론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라고 부른다. 이어서 다음 행에서 성적 타락 외에 런던이 가진 바빌론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런던을 "간계 제조소, 울분의 소굴"이라고 명명하면서, 런던이 행하는 바빌론적 거짓을 보다 구체적으로 교활한 술책, 간계라 지목한다. 또한 런던이라는 공간도 매우 협소하게 구체화하여 그런 간계가 만들어지는 제조소, 공방이며 울화가 득실거리는 소굴이라고 부른다(53). 여기서 표면적인 영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craft"는 간계, 술책, 그리고 "shop"은 간교한 거짓을 꾸며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shop"의 일차적 의미인 상점, 가게, 공장과 연상되는 "craft"의 일차적인 의미는 기술, 공예이다. 그렇다면 "The shop of craft"는 기술공방, 기술제조소로서 런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던 동업 조합(guild)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써리가 런던을 동업 조합들과 동일시하고 비난한다면, 그는 당시 런던의 정치, 경제적 상황의 중심에서 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민 엘리트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이 풍자하는 당시 런던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 런던의 행정 조직과 통치체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대 초기 런던의 중심부는 "도시"(City)였는데, 이 한 제곱 마일의 관할구역은 11세기부터 왕의 인가를 받은 특별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Manley 1). 런던 시라는 이 독립행정구역 안에서 모든 면에서 중심 역할을 한 조직은 동업 조합들이었다(Manley 3-4; Porter 49).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7년 동안의 도제기간(apprenticeship)을 거치는 것이었고, 조합들은 강한 결속력을 가진 위계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회원관리를 하였다. 이들 조합원들이 런던 시민권을 관리하였고 또 시민권자만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들 조합에서 시의원과 시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조합들은 명실공히 런던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

치적, 경제적 카르텔"을 형성해왔다(Brigden, *Reformation* 141). 이 조합들만이 런던 행정구역 안에서 교역을 할 수 있었는데, 16세기 전반에 런던과 시의원들이 누리던 경제적 번영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양모 산업이었다. 영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런던은 템스(Thames) 강을 통한 해외 교역이 용이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양모교역이 증가하면서 15세기 이후 전국 양모 산업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였고, 써리가 「런던」을 썼던 즈음에는 런던의 비율이 86퍼센트, 다시 말해 런던이 양모 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Beier and Finlay 14-15; Manley 5). 그리하여 1550년 경 런던 조합원의 40퍼센트 정도가 양모 조합 회원들이었고 런던은 명실공히 전국 산업의 거의 9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어 근대 초기 영국의 경제활동이 이 도시에 집중되었던 것이다(Porter 46).

이와 같이 조합들이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축적해나가면서 튜더 왕조 동안 수많은 제조공방들(workshops)과 상점들(shops), 새로운 조합들,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도제가 되기 위해 또 일거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런던으로 모여들었다. 도제제도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 즉 상인들과 기술자들이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 전략으로 택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Brooks 54-55). 이들 20세 이하의 도제들이 16세기 초 런던 인구의 반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혈기 왕성하고 매우 불안정한 젊은이들이며 하나의 대의명분에, 특히 금기시되는 종교적, 사회적 명분에 쉽게 부화뇌동하여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분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주기적으로 기술도제들은 사창가들과 극장들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렸으며 법률 도제들인 법학원(Inns Court) 학생들의 난동 또한 악명 높았다(Brigden, *Reformation* 121; Boulton 335). 과연 이들 도제들이 활동하는 런던 조합들은 "울분의 소굴"로 불릴 만하였다.

런던 상인계층의 시민들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왕권과 궁정과 결탁했기 때문이었다. 런던의 상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튜더왕조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공헌하였다. 더구나 튜더 왕조가 시작되면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앙집권화가 가속화되고 왕과

왕족, 귀족들도 런던에 궁정과 고급 저택에 머물면서 런던을 국가 정치의 중심으로 삼기 시작하였다(Beier and Finlay 11-13). 조합 상인들은 귀족들의 여러 가지 경비를 담당하였고 무엇보다 대부호 상인들은 튜더 정부의 재정을 도우면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 신흥 왕조는 런던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기도 하고 런던의 신용을 이용하여 외국 차관을 들여왔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런던의 교역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돕거나 상인들에게 특허권과 독점권, 혹은 수입이 좋은 관직들을 하사하였다(Beier and Finlay 16-17; Boulton 341; Manley 5-6).

이렇게 동업 조합들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안정된 권력 구조를 형성하면서 런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구유입을 촉진시켰는데, 양모 산업 못지않게 런던의 경제적 변화와 지리적 팽창을 가속화시킨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인은 수도원 해산(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이다. 종교 개혁 이전에 런던을 조망할 때 가장 크고 높은 건축물들은 모두 교회나 수도원과 관련된 건물들이었고 런던 성 내 많은 땅들 또한 교회나 수도원 소유였다. 그런데 이 지리적 전망은 종교 개혁과 더불어 바뀌기 시작하였다.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의 이름으로 1536년부터 수도원들을 해산하고 수도원과 교회의 땅과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는데, 실제로는 왕이나 그의 측근 가신들, 친구들이 사거나 하사받는 형태로 몰수한 대부분의 건물들과 토지들을 차지하였다. 교회와 수도원 건물들, 주교관 등 런던의 많은 종교 건물과 토지가 왕과 귀족가문, 또는 부유한 런던 시민들의 소유가 되었고, 개별 소유주들은 용도에 따라 이 건물들을 철거 후 신축, 재건축, 혹은 용도 변경을 위해 개·보수하였고,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들을 세웠다. 그리하여 이 종교용 건물들은 왕의 새로운 궁이 되고 귀족 가문의 런던 거주지가 되거나 유리공장, 테니스 코트, 설탕공장, 빵공장 혹은 블랙프라이어즈(Blackfriars) 같은 연예장 등으로 바뀌었다(Porter 41; Beier and Finlay 13). 수도원 몰수로 쏟아진 땅들로 인해, 1540년경부터 영국 전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성장하여 건축 붐이 일었는데(Beier and Finlay 12) 이 모든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 런던이 있었다. 이와 같이 16세기 전반은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힘들이 모두 수도 런던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일어난 문화적 변화도 런던이 주도해나가기 시작한 때였다.

써리는 종교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가져온 부동산과 제조 산업의 발전과 인구 급증 등으로 번영을 누리는 런던을 향해 돌을 던지고 풍자시로 독설을 쏟아내었다. 이 점은 시의 서두에서부터 암시되어 있다.

> 런던아, 네가 나를 범법자라고, 분쟁의 뿌리라고
> 고소하였느냐?
> 내 가슴은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 너무도 뜨겁게 타오르며, 너의 방종한 삶을 보고.
>
> London, hast thou accused me
> Of breach of laws, the root of strife?
> Within whose breast did boil to see,
> So fervent hot, thy dissolute life, (1-4)

테일러는 4행의 "So fervent hot"이 구문 상 3행의 "breast"와 4행의 "thy dissolute life"와 동시에 걸리면서 "서스펜션과 애매모호함"을 만들어낸다고 지목하면서, 이를 이 작품의 해석상 불확정성의 예로 들고 있다(442). 그가 지적한 구문 뿐 아니라 "dissolute"라는 단어 또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방종한" 런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 방종의 원천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dissolute"라는 단어는 수도원의 해산(Dissolution)을 연상시키는데, 써리는 이 단어를 통해 수도원 해산으로 인해 일어난 부동산과 건축 붐, 인구 증가로 인한 제조 산업의 호황 등으로 누리는 런던의 번영의 삶을 "방종한 삶"이라 비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dissolute"는 「런던」에서 써리가 종교적, 도덕적 언어로 공격하는 대상을 이 호황의 수혜자들, 런던의 동업조합 상인들로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써리는 시의 서두에서부터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은 수도원 해산으로 이익을 얻고 경제적 호황을 누린, 런던의 정치적, 경제적 위계질서의 피라미드에 있는 조합들의 고위층들을 구체적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써리 일행들이 런던에서 가장 특권적 위치에

있던 상인계층의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소동을 부렸다는 사실이다. 그의 일행들은 한밤중에 런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밀크 스트리트(Milk Street)에 있는 몇 몇 집들의 창문들을 부수었는데, 밀크 스트리트는 길드홀(Guildhall)에도 가까우며 런던 내에서도 번창하는 구역에 속하였으며, "부유한 상인들과 다른 이들이 사는 많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Stow 256) 거리였다. 써리 일행이 공격한 집들의 주인들은 궁정에 모직을 납품하던 상인으로 런던 시장이기도 했으며 수도원 해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신흥 부자 리처드 그레셤 경(Sir Richard Gresham)과 시의원 버쓰(Alderman Birth)였다. 또한 써리 일행들은 밀크 스트리트에서 멀지 않은 칩사이드(Cheapside)에서 도제들을 향해서도 격하게 행동하였다(Sessions 232).

그는 밤중에 소란을 피운 자신의 의도는 런던의 성벽 안에 칠죄종에 취한 시민들을 깨워 하느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런던」 41-42). 써리는 자신이 보기에 런던 성벽 안에 넘치는 죄들은 개혁적 설교가들도 교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에(「런던」 9-10), 자신은 다른 방법, "신의 명령의 형상"(A figure of Lord's behest, 「런던」 21)인 석궁으로 정의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써리가 볼 때 런던 성벽 안에 사는 시민들은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sluggards, 「런던」 20)로 싸워 이겨야할 자신들의 "적들"(foes, 「런던」 52)을 "번영(복리)"(weal, 「런던」 52)로 알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즉, 그들은 영적, 도덕적 적으로 간주해야할 재물에 대한 탐욕을 오히려 "복리"로 여기며 그것들을 누리고 그 이득에 탐닉하여 마땅히 가져야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써리는 죄에 탐닉한 런던 사람들이 지어올린 건물들에 대해서도 묵시적 심판을 가한다.

> 교만하게 높이 솟은 크고 작은 네 탑들,
> 하느님의 적들, 그것들의 돌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 불의를 자행한 네 우상들은 불타버리리라.

Thy proud towers and turrets high,
En'mies to God, beat stone from stone,
Thine idols burnt that wrought iniquity; (62-63)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런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써리는 여기서 런던과 우상을 연결시킴으로써 런던을 가톨릭의 중심지로 간주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또 다른 차원의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런던의 가장 높은 건물들이었던 가톨릭교회와 수도원들의 대부분이 왕족, 귀족, 런던 부유 상인들의 거주지 혹은 공장이나 여흥장 등이 되었다. 런던의 새로운 지리적 풍경 속에서 높은 건물들의 소유주들은 런던 시장이나 시의원들과 같은 "새로운 상인·군주 엘리트"(Porter 49)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쌓아 올린 높은 탑들은 성경의 바벨탑(창세기 11장)을 연상시키는데, 성경에서 사람들은 "도시와 탑"(a cite & a tower)을, 특히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자 하였다(Genesis 11.4, *The Coverdale Bible*, 1535). 성경 해석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이 높은 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느님의 적들"을 의미한다. 또한 히브리어로 바벨은 바빌론의 어원으로,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과 연상되는 도시와 그 탑들은 곧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의미한다(Strawn). 그렇다면 써리가 런던을 "바빌론"이라 부르는 것은 곧 도시 런던과 탑들을 건설하고 있는 런던이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바빌론과 같은 도시와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한 탑을 건설하고 있는 이들이 하느님 대신 섬기는 것이 "우상들"이며, 이들이 섬기는 우상은 종교적 신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경제적 탐욕일 것이다. 시인은 그 탐욕이 세운 건물들이 모두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그렇게 바빌론을 심판하신 올바르고 현명한 주님"(the right wise Lord / That so hath judged Babylon, 「런던」 66-67)에 대한 찬미로 시를 맺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적 예언의 언어 속에 숨은 써리의 "은밀한 적의"(secret spite, 「런던」 14)가 당시 급성장을 하고 있던 런던과 그 상인계층에 대한 공격을 함축하고 있다면, 시인이 가톨릭인지 프로테스탄티즘인지 모호하게 분출하는 종교적

열정 속에 또 다른 파열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써리의 시와 사순절 기간 그의 일행의 행동은 당시 런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정신에서 나온 상인들에 대한 저항 행위라고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써리의 시가 당시 종교적으로 아방가르드에 속했던 니콜라스 포인츠 경(Sir Nicholas Poyntz)에게 보내졌고, 마치 써리의 규탄의 예언이 적중한 듯이, 런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는 개혁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당시 시의원들이 성매매를 처벌하기 시작하기도 했다(Taylor 519). 또한 복음주주의자들과 같은 설교의 목소리로 런던을 심판하고 있는 써리의 태도는 프로테스탄트적으로 보이고, 그와 함께 런던을 심판하는 "칼과 불로 피흘린 순교자들"(The Martyrs' blood, by sword and by fire, 「런던」 16)도 프로테스탄트 순교자인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거론하는 순교자들이 반드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신봉한 사람들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는 가톨릭 신앙에 철저히 충실하여 종교개혁 성향의 사람들을 적대하였지만 종교개혁 후에는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를 비롯하여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적 탄압을 받아 불로, 칼로 희생되었다. 따라서 이들 순교자들은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파에 의해 순교한 이들이 아니라 종파와 상관없이, 써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느님에 적대하는 세력들, 칠죄종에 빠진 무리들의 삶을 반대하고 거스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써리 자신의 종교적 행보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점도 이 작품의 두드러지게 강한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성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게 한다. 그는 가톨릭 배경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 노포크 공작은 당시 보수 정치와 종교를 대표하는 귀족이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초창기에 일어난 종교와 정치의 연쇄적 변화 속에서 가톨릭 측과 프로테스탄트 측, 양측 모두 써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간주하기도 하였고 또 그는 종교적 성향을 의심받아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기류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가톨릭 봉기자들(Pilgrims of Grace, 1536)을 진압하였고 개혁적인 와이어트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로 인해 그는 프로테스탄트로 간주되었지만, 아니러니 하게도 가톨릭 신앙을 은밀히 고수했다는 죄목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역모 죄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Brigden, "Howard" 513-16, 521-22, 532).

그 어느 쪽이든 종교적 열정이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열정적 공격 대상이 런던 상인 계층이라면, 그의 상인들에 대한 풍자는 사회적 불의에 의해 고통 받는 약자나 경제적 번영과 관계없이 행해진 이익의 불공평한 분배, 빈부의 차이, 당시 가난과 빈부의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의협심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런데 힐도 지적했듯이(145), 시에서 써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의의 희생자들의 편을 든다든가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약 반세기 후 귀족이 아니라 평민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런던에 대한 시를 쓴 휘트니(Isabella Whitney)의 시("Wyll and Testament")와 비교할 때, 써리의 시에는 휘트니가 보여주는 16세기 런던의 특징이었던 "불의와 불평등," "빈자와 부자," "사회적 비참과 귀족적 사치" 사이의 극명한 대조(Classen 138)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감옥에 갇혀 이 시를 썼을 것이지만 휘트니처럼 감옥의 상황이나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이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써리의 풍자를 당시 종교 개혁과 런던의 성장이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사회적 지평에 미친 영향, 특히 계층 간의 갈등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이 시의 종교적 열성은 시인의 의도와 달리 근대초기 문화적 변화의 한 양상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써리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사원을 세운 참회자 에드워드(Edward the Confessor)와 에드워드 3세의 후손으로 혈통상 왕손이었으며 당시 영국 최고의 귀족층에 속하는 전통 지주 가문 출신이다. 그는 일종의 왕자[4]와 같은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 이 점은 헨리 8세의 사생아였던 헨리 피츠로이, 리치먼드 공작(Henry Fitzroy, Duke of Richmond)과 윈저 성에서 함께 자랐고 유럽을 같이 여행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워드 가문은 앤 볼린과 캐서린 하워드(Catherine Howard) 두 왕비를 배출하였고, 비록 이들의 비극적 최후로 가문이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써리와 그의 아버지는 그 위기들을 잘 넘겨 헨리 8세의 신임을 잃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왕권의 최측근인 동시에 왕손으로 황위계승자 에드워드의 왕위계승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 혈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았을 써리와 같은 사람들은 제인 씨머(Jane

Seymour)가 낳은 아들 에드워드로 인해 미래의 권력을 보장받아 젠트리(gentry) 계층에서 급부상하여 전통 귀족 못지않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된 씨머 가(the Seymours)와 같은 벼락출세자들(the upstarts)과는 위험한 관계를 지속했다. 젠트리 계층이 전통적으로 귀족들의 소유였던 정치권력의 공유를 주장하고 또 성공적으로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Fisher and Cornfield 110). 하워드 가문은 평민 출신인 두 추기경 월지(Cardinal Wolsey)와 크롬웰(Cardinal Cromwell)에 대해서도 지극히 강한 혐오를 가져 그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Starkey 96-97). 그들이 몰락하고 1540년 추밀원이 국정 운영을 주관하면서 추밀원의 양대 세력, 하워드 가문이 대표한 사회적, 종교적으로 보수파와 씨머 가문이 대표하던 개혁 프로테스탄트 신흥 귀족계층 간의 권력 다툼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써리가 런던 시내에서 스캔들을 일으켰던 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통 보수귀족과 벼락출세한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젠트리 가문이 권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써리와 같은 전통 귀족들은 궁정의 벼락 출세자들 뿐 아니라 런던의 경제력을 등에 업고 상인계층에서 젠트리 계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을 수 있다. 런던의 정치, 경제적 성장은 중세적 세 계급 분류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젠트리 계층과 상인 계층 간의 경계를 점점 유동적으로 만들었다(Manley 7).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젠트리라는 용어는 반드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젠트리, 젠틀맨(gentleman)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오분의 일이 혈통과 토지 소유로 구분되는 젠트리라기 보다는 부유한 상인/시민들이나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던 것이다(Brooks 61).

영국 문화사에서 특히 전통 지주 귀족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중세 이후 이어져 내려온 기존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위협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변화였는데, 써리도 이 "사회적 무질서"를 주도한 것이 "상인의 탐욕과 교만"(Heale 145)이라고 간주하였을 수 있다. 써리와 그 일행들이 창문을 깬 집 주인들은 상업적 성공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대표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혈통과 토지 보다는 부와 개인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후 시민사회를 주도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법적 권력을 행사할 부르주아 계층의 발생기적 단계에 있던 사람들"(Manley 14)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써리의 풍자는 어떤 점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귀족의 전통과 특권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와 새로운 자본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사실 종교적 보수주의자건 개혁주의자건, 귀족이건 시민이건 똑같이 종교 개혁을 통해 방출된 수도원과 교회의 부에서 이득을 취했으므로 하워드 가문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영국 문화의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세습 귀족들에게는 급격한 변화였으며 그 상황들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아직 젊고 또 "경솔한 기질과 '무모한' 의지"(Zim 89)라는 약점을 가졌던 써리는 고도의 생존 전략으로 은밀하고도 신중한 용의주도함 대신 궁정에서 야심 많은 벼락 출세자들에 대해서는 우화시로 반감을 드러내었고[5] 밀크 스트리트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런던」에서는 런던의 영적, 도덕적 상황에 대한 규탄 속에 런던의 상인들에 대한 풍자를 감추고 있다. 그가 이 시에서 다섯 번이나 사용한 "숨긴" 혹은 "은밀한"[6]이란 표현에 주목할 때, 종교 개혁과 열정의 중심지인 듯한 런던이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secret sin, 「런던」 14) 만큼이나 그는 시에서 자신의 "은밀한 적의"(secret spite, 「런던」 14)가 겉으로 드러나는 비판적인 종교적 열정의 언어를 뚫고 순간순간 분출되도록 숨겨놓은 것처럼 보인다.

써리의 「런던」의 종교적 열정의 표면을 뚫고 파열하는 듯한 이와 같은 계층 간의 갈등에서, 시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런던을 중심으로 근대초기에 일어날 도시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예견을 도출해볼 수 있다. 푸코(Michelle Foucault)는 공간과 권력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공간의 중요성에 있어서 변화, 즉 국가가 도시 구역을 모델로 하고 도시 행정을 국가통치의 모델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의 경우) 17세기 초부터이며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도시 조직과 구조가 국가 통치를 위한 기본 개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41). 즉 17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통치가 국가 전영역의 통치의 모델이 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왕의 몸인 국가(body politic)

개념을 대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그 유지 세력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유지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 변화와 갈등이 17세기 초부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시 여전히 국가 영토와 공간을 왕의 몸으로 간주하는 계층의 사람들, 특히 절대왕권의 신봉자였던 제임스 1세(James 1)는 "런던이 곧 영국 전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며, 당시 런던의 급증하는 인구와 팽창하는 행정 구역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국가 몸에 생긴 질병들로 간주하며 런던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드러냈는데, 대부분의 귀족 신하들도 이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Fisher and Cornfield 105에서 재인용). 써리가 「런던」에서 런던에 대한 풍자와 예언도 제임스 1세가 런던에 대해 표출하는 정서, 왕으로서 혈통에 의해 받은 권리, 소유, 권력, 그것들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의 결을 언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임스 1세보다 먼저 써리는 런던을 중심으로 이후 백년 넘게 일어날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갈등을 20대 젊은 시절에 직면하였고, 런던에 대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규탄의 언어에 그의 귀족적 정서가 파열적으로 표출되고 있을 수 있다.

써리의 종교적 열정을 뚫고 터져 나온 근대초기의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단면은 그가 비난을 가하는 시민계층의 역사적 중요성을 아이러니하게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수도 런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이 도시와 시민의 중요성을 역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시 시민 엘리트들의 의식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런던 시민 계층은 이미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런던과 같은 도시 공간을 국가의 중심으로, 시민들이 그 통치의 중심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푸코에 의하면 중세와 16세기에 나온 국가 정치와 통치에 대한 저술들에는 도시 구조나 건축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프랑스의 경우 17세기 이후 도시를 국가 영토의 은유와 상징으로 보고 도시 통치를 국가 통치의 기반으로 간주하는 개념에 의거한 많은 유토피아적 책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다(40-43).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도시 공간을 국가 개념으로 다룬 유토피아적 저술이 이미 16세기 초에 출간되

었다. 바로 모어(Thomas More)가 『유토피아』(*Utopia*)에서 도시를 국가 개념으로 다루면서 국가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 사실을 써리와 관련지어 볼 때 매우 흥미롭다. 이 저술은 써리가 태어난 즈음(1516/17)인 1516년 라틴어로 출간되었고, 또 모어는 런던의 전문직 계층, 법률가의 아들로서, 이후 헨리 8세의 대법관(Lord Chancellor)이 되어 법률가로서는 국가 최고 권력을 누린 인물이다. 모어와 그의 아버지, 토마스 모어 경(Sir Thomas More)도 판사로서 젠트리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어의 가문은 전통적 젠트리가 아니었다. 모어는 써리 일행들이 반감에 찬 파손 행동을 했던 런던의 부유한 시민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밀크 스트리트에서 1478년 출생하였다(Ackroyd 37-38). 모어의 친할아버지는 빵집 주인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양초 제조업자로 런던 동업 조합의 회원들이었으며 여러 세대 동안 기술능력을 통해 부를 쌓아 판사와 지주, 모어와 같은 대법관을 배출한 집안들이었다(44-45). 물론 써리가 신흥 출세 계층인 모어와 어떤 계층 간의 권력 다툼을 했다는 정보는 없고 『유토피아』를 읽었다는 기록도 없으며, 모어는 써리가 「런던」을 쓰기 전에 사망하였다(1535). 또한 모어는 써리의 시에 함축된 비난받을 만한 상인 계층의 시민들과는 도덕적 명성에 있어서 거리가 멀기도 하다. 하지만 모어와 같은 런던 시민 출신의 엘리트가 이미 16세기 초에 『유토피아』를 통해 런던과 같은 도시를 통치의 기준과 모델로 이상화한 것은 써리가 시에서 비난하는 시민 계층의 여러 가지 영적, 도덕적 죄악 속에서도 그들의 의식은 이미 근대화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써리는 15세기부터, 그리고 16세기 들어 급속히 발전한 런던 시민 의식의 성장과 그 성장이 만들어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마주하고 「런던」에서 그 성취를 빚어낸 역사적 상황들과 그 성취가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한다. 그 비판과 풍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온당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속에는 써리 개인의 불편함도 함축되어 있다. 그 함축은 그도 의도하지 않게 시에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게 될 런던이라는 도시와 그 시민들이 이후 가지게 될 사회적, 정치적, 계층적 문제점과 중요성을 동시에 예견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된다.

**Notes**

1) 「런던」 외에도 써리는 1537년 궁정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윈저 성에 감금되었을 때 리치먼드 공작과 그 성에서 함께 자란 기억을 회상하며 「윈저에 감금되어」 ("Prisoned in Windsor")를 썼고, 1546년 런던탑에 갇혀 있을 때 처형되기 몇 달 전 그의 처지를 대변하는 기도들이라 할 수 있는 시편 55, 73, 88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2) 써리의 작품으로부터 인용은 Howard, Henry, Earl of Surrey, *The Complete Works of Henry Howard, Earl of Surrey* (Delphi Classics, 2013)에 의한다.

3) 1537년 이후 1547년 처형될 때까지 써리는 여러 차례 체포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1543년 써리의 투옥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Padelford 21; Sessions 221-38; Taylor 433-36 참조.

4) 써리가 1543년 재판을 받을 때, 사건에 연루된 평민들이, 아마도 귀하신 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했겠지만, 그를 왕자(prince)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증언들이 나왔다. 이 증언들과 더불어 「런던」 은 1546년에 감옥에 투옥되어 역모 죄로 몰리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들로 작용하게 되었다(Sessions 231).

5) 귀족 출신의 써리가 신분상승을 한 신흥 귀족을 패러디한 작품으로는 「짐승은 저마다 제 짝을 택할 수 있네」 ("Each beast can choose his fere")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우화시에서 써리는 하워드 가문의 문장에 등장하는 사자로, 그와 춤추기를 거절한 앤 스태노프(Anne Stanhope)를 늑대로 묘사하는데 앤은 이후 제인 씨머의 올케가 되어 씨머가문의 일원이 된다. 고귀한 사자와 사나운 늑대의 패러디는 곧 써리와 같은 귀족과 씨머와 같은 근본이 젠트리 출신인 사람을 빗대고 있는 것으로, 두 가문의 갈등은 써리의 시에서 뿐 아니라 삶에서도 현실화된다. 써리가 수도원 해산을 거부한 가톨릭 쪽의 "은총의 순례자"(The Pilgrims of Grace)의 봉기를 아버지와 함께 진압했지만, 씨머 쪽의 사람에 의해 그의 종교적 성향을 의심받자 헨리 8세의 궁정에서 그를 때려 벌로서 윈저 성에 갇히게 된다(1537). 플리트 감옥에서 「런던」 을 썼듯이, 이때 써리는 헨리 8세의 사생아 리치먼드 공작과 윈저 성에서 함께한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썼다.

6) "My hidden burden" (12); "That secret sin hath secret spite" (14); "In secret silence of the night" (18); "my secret call" (49).

# 인 용 문 헌

Ackroyd, Peter. *The Life of Thomas More*. New York: Anchor Books. 1999. Print.

Beier, A. L. and Roger Finlay. "The Significance of the Metropolis." *London 1500-1700: The Making of the Metropolis*. Ed. A. L. Beier. London: Longman, 1986. 1-33. Print.

Boulton, Jeremy. "London 1540-1700." *The Cambridge Urban History of Britain, vol. II 1540-1840*. Ed. Peter Clark. Cambridge: Cambridge UP, 2008. 315-46. Print.

Brigden, Susan. "Henry Howard, Earl of Surrey, and the 'Conjured League.'" *The Historical Journal* 37.3 (1994): 507-37. Print.

_____. *London and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1989. Print.

Brooks, Christopher. "Apprenticeship, Social Mobility and the Middling Sort, 1550-1800." *The Middling Sort of People: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in England, 1550-1800*. Ed. Jonathan Barry. New York: St. Martin's, 1994. 52-83. Print.

Classen, Albrecht, ed. *Urban Space in the Middle Ages and the Early Modern Ag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9. Print.

Coverdale, Miles. *The Coverdale Bible. Textus Receptus Bibles*. Web. 9 May 2019.

Fisher F. J., and Penelope J. Cornfield. "The Development of London as a Centre of Conspicuous Consumptio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London and the English Economy, 1500-1700*. Ed. F. J. Fisher. London: Hambledon P, 1990. 105-18. Print.

Foucault, Michelle. "Space, Knowledge, and Power." *The Foucault Reader*. Ed. Paul Rabinow.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239-56. Print.

Heale, Elizabeth. *Wyatt, Surrey, and Early Tudor Poetry*. London: Longman, 1998.

Print.

Howard, Henry, Earl of Surrey. *The Complete Works of Henry Howard, Earl of Surrey*. Hastings, UK: Delphi Classics, 2013. Print.

Manley, Lawrence. *Literature and Culture in Early Modern London*. Cambridge: Cambridge UP, 1995. Print.

Mason, H. A. *Humanism and Poetry in the Early Tudor Period: An Essa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9. Print.

Padelford, Frederick Morgan. *The Poems of Henry Howard Earl of Surrey*. Seattle: U of Washington P, 1920. Print.

Paster, Gail Kern. *The Idea of City in the Age of Shakespeare*. Athens: U of Georgia P, 2012. Print.

Roy, Porter. *London: A Social History*. Cambridge: Harvard UP, 1998. Print.

Sessions, William A. *Henry Howard, the Poet Earl of Surrey: A Life*. Oxford: Clarendon, 1999. Print.

Stow, John. *A Survey of London Written in the Year 1598*. Stroud, UK: The History P, 2005. Print.

Strakey, David. *Rivals in Power: Lives and Letters of the Great Tudor Dynasties*. New York: Grove Weindenfeld, 1990. Print.

Strawn, Brent. "Holes in the Tower of Babel." *Oxford Biblical Studies Online*. Oxford UP. Web. 10 May 2019.

Taylor, Andrew W. "Glass Houses: Surrey, Petrarch, and the Religious Poetics of the 'London' Invective."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57 (2006): 433-55. Print.

Zim, Rivkan. *English Metrical Psalms: Poetry as Praise and Prayer 1535-1601*. Cambridge: Cambridge UP, 1987. Print.

## Abstract

# A Study of "A Satire Against the Citizens of London" in Its Cultural Context

Jin-Ah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A Satire Against the Citizens of London," contextualizing the poem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situations of London in the first part of the sixteenth century. Henry Howard, Earl of Surrey denounces London as a spiritually and morally corrupt space, which was radically expanding and prospering mainly due to the profits from the 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 and the virtually monopolized woolen trade. His attack on London is aimed at the wealthy London merchant elites, who colluded with the Tudor monarchy, advancing their political and social status. Surrey's satire in a prophetic fervor not only judges their wrongdoings but also inadvertently reveals the conflict between the hereditary nobility and the rising middling class, and between the emergence of London as the future model of the state government and its citizens as the nascent bourgeoisie in the cultural history of England.

**Key Words: Henry Howard, Earl of Surrey, "A Satire Against the Citizens of London," satire, early modern London, Babylon**

논문접수일: 2019.06.02
심사완료일: 2019.06.12
게재확정일: 2019.06.16

이름: 이진아 (교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메일: jinah@hufs.ac.kr